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NNKUMW**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June. 2017

Newsletter



photo: 중앙아시아 기...

1.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
2. 몽골에서 온 편지
3. 교도소 문서선교지 방문
4.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5.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평화학교 세미나
6. 2017년 전국지도자훈련 안내
7. 특서프로그램
8. 한국여선교회 역사 시리즈
9.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



#### 2017년 중앙아시아 기독 여성훈련

이번 중앙아시아 기독 여성 훈련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선교 여행이었다. 사실 중앙아시아 쪽의 선교여행을 계획한 적도, 기대한 적도 없었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문외한이나 다름 없었던 나에게 우연히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얼마나 기대하며 가야 할지 사실 감도 잘 잡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준비 기간 동안 영적 공격 또한 만만치 않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클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80년 전 아픔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한인족을 그 땅에 심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며,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며 동참할 수 있음이 크나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

“평화와 여성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카작인,

키르키르스탄인, 고려인들로 이루어진 40여 명의 자매들과 함께 3일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용서와 화해의 삶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삶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며 함께 훈련받았다.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어떤 환경과 상황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내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화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훈련을 마쳤다.

나는 이번 선교팀이 참 서로 협력이 잘되고 호흡이 잘 맞아서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전국연합회 선교팀과 현지 선교팀에 있는 모든 분이 정말 각기 특색있고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협화음 하나 없이 잘 진행되어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참 고되고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그동안 내가 삶에서 좌우 충돌하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훈련받았던 경험들이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실전을 치르는데 꼭 필요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다.

디렉터이신 성령님의 인도 하심과 지시에 따라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어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메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충실히 예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워크숍 바로 전에 멘트를 적어 놓은 원고를 강쪽같이 잃어버리는 해프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

잠시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워크숍을 통하여 '용서'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한 자매의 질문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심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고통의 역사를 통과하며 남겨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제는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며 평화와 사랑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군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글: 김남주 집사, 델라웨어-볼티모어연합회 임원,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 > English



### The Central Asia UMC Women's Training 2017

The Central Asia UMC Women's Training was a very meaningful mission trip. In fact, I had never planned or expected to travel to central Asia as a mission trip. So, when I was given an opportunity, I was not sure what to expect from the mission trip because of my lack of knowledge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Central Asia.

However, I strongly felt that God was guiding me. And I was convinced God would provide more than enough sufficient grace against spiritual attacks in preparing for the trip.

God planted Koreans through a painful history in that land, 80 years ago. The dispensation and planning of God has now

been accomplished through the Korean people's descendants. It was a blessing to become a witness and realize that this is God at work.

With Kazaks and about 40 Korean descendants, we laughed and cried together under the theme of "Peace and Woman's community". In 3 days we learned about living in harm and peace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 Knowledge that we were God's precious daughters would enable us to overcome any difficult circumstances. And we finished training with commitment to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through harmonious lives and generous minds.

I thought about why our mission team worked so well together and came to become united as one. Through their lives, God has rigorously trained everyone in national and local mission teams. God's training united everyone despite their differences and uniqueness.

I realized that my experiences of ups and downs in my life were necessary as training to carry out the duty of a spiritual battle in the mission field.

Through the formation of his masterpiece, we have become filled with thankfulness and recognize the Holy Spirit's guidance in each team member's lives.

And this was an experience of confirmation that God does not give in to a person's thoughts or plans.

(Written by **Namjoo Kim**, Delaware-Baltimore KUMW Network, Delaware KUMC)



## 몽골에서 온 편지



### 몽골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의 간증

제 이름은 자르갈체책입니다. 나이는 51 세입니다. 칭글테연합감리교회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저의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남편 이름은 Tumenjargal 53 세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Enkhtaiwan 이며 25 살, 그리고 막내아들의 이름은 Enkhdulguun 이며 13 살입니다.

칭글테연합감리교회가 2003 년 6 월 1 일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저의 큰아들은 2003 년 7 월부터 칭글테연합감리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11 살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아들이 교회에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와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김 선례 선교사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셨고, 또한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 날부터 아들과 함께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차를 수리하는 작은 건물 2 층을 월세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특별하고 새롭게만 보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으며, 담배도 피우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과 담배를 끊게 해 주시고, 새로운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 후, 첫아들을 낳은 지 13 년 만에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내 삶 속에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도록 해주셨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술과 담배도 조금씩 줄이게 되었고, 또한 좋은 직장을 주셔서 교회에서 guard 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큰아들은 찬양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2005 년 6 월에 큰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 가족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셨던 분들은 김선교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셔서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신앙이 좀 더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교회에서 수위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교회 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아들은 거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남편 대신 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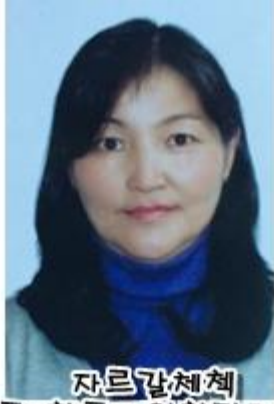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좋은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두 아들이 드럼, 기타, Keyboard 를 칩니다, 큰아들은 음향실에서 그리고 찬양팀 리더로 섬기다가 2014 년 4 월에 한국에 있는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하고 일하러 갔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몽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울란바타르 중학교 2 학년입니다. 1 개월에 한 번씩 몽골연합감리교회들이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 멤버로 드럼을 치면서 섬기고 있고, 또한 칭글테교회에서는 음향 실에서 그리고 기타로 봉사하며,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잘 배워서 미래에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일을 하면서 2015 년부터 몽골감리교성경학교 야간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진실한 성도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친구들과,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글: 자르갈체첵, 몽골 칭클테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

## > English



자르갈체첵  
몽골 칭클테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

### Testimony of Mongolian United Methodist Women

My name is Jargalchechek. I am 51 years old. I am a manager at the Chingulte United Methodist Church. I am glad to share with you how I came to believe in Jesus.

I have a husband and two sons. My husband's name is Tumenjargal, 53 years old. My older son is Enkhtaivan, 25 years old, and the younger one is Enkhdulguun and 13 years old.

When the Chingulte United Methodist Church began to pioneer on June 1, 2003, my older son began to attend the Chingulte United Methodist Church in July 2003. At that time, my older son was 11 years old. I heard the gospel for the first time through my son, and I came to church and believed in Jesus because my son invited me to church.

I met my first missionary, Sunlae Kim, and I came to know her. She told me about God, and when we died from sin and transgression,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and taught us that the grace saved us, and I received a heartfelt gratitude

from the Church. This was the reason for me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with my son from that day.

At that time, our church rented 2nd floor of a small building that repaired the car. Since we had just pioneered the church, everything was special and new to me. I felt the peace which the Lord gave me in my heart when I went to church and singed hymns and listened preaching.

At that time, my husband drank a lot of alcohol, smoked, and was fired at work, so I prayed for my husband whenever I came to church. I prayed for that my husband has stopped drinking and smoking, allowing me to get a new job, and praying for my life to be restored.

After that, I became pregnant with my second son in 13 years after I gave birth to my first son. From then on, the grace and blessings of the Lord began to come down in our family and in my life sincerely.

My second son was born, my husband started believing in Jesus, he drank and smoked less, and I got a good job and worked as a guard in the church. I also served for the church. My older son served in the praise team. These happened just because of the God. God has listened to my prayers.

Most important of all, our whole family believed in Jesus and became children of God. We received Jesus as a deliverer who saved our family and all my family members came to serve God with gratitude.

In June 2005, my older son suddenly had a car accident. It was Missionary Kim and Church members who prayed for us without forgetting our family during such a difficult time. Miraculously, my son was not injured.

I thank God for protecting God's loving son. Through these difficulties, we have come to believe that our family's faith has grown more and that God is still alive. My husband completely stopped drinking and smoking.

And because my husband was working as a guard in the church, my family was living in the church yard. Especially my younger son lived almost in the chapel. Soon after, I came to work in the church office instead of my husband. My two sons believed in Jesus, went to the church, became closer to God and had a good influence, and also grew up learning good things.

My two sons play drums, guitars, and keyboards. My older son serves in the auditorium and as a praise team leader. In April 2014, he went to work with a company in Korea. He is currently serving the Mongolian Church in Korea. He especially leads a praise team.

My younger son is in a 2nd grade Junior High School in Ulaanbaatar. When Mongolian United Methodist Churches gather to serve he plays drums as a member of the praise team when they give praise worship service once a month. He also plays a guitar in Chingulte Church and serves in gymnasium and other places and also worships service on Sunday.

I am studying English and Korean for the future and have a dream to become a good leader in the church in the future. I am currently studying at the Mongolian Methodist Bible School at night since 2015 while working at the church.

I want to live a life of witnesses who testify of the Lord to the ends of the earth with a sense of mission to save many

souls who have learned more about God and have not yet heard the gospel. I always thank God for bringing me so far.

Our family received the Lord with all our heart and sincerity and was baptized. I want to live in the church as a sincere saint and thankfulness. I will continue to live my life as a witness to God, preaching the gospel to friends, brothers, and relatives. Amen.

(Written by **Jargalchechek**, Chingulte United Methodist Church, Mongolia)



## 교도소 문서선교지 방문



덴버공항에서 마중나온 이영희 목사님

### 교도소 문서선교의 현장

덴버공항에 내리자 영하의 날씨에 함박눈이 펄펄 내리며 나를 반겨주었다. 그날 새벽에 뉴욕공항을 출발할때 날씨가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5시간 30분을 서부로 날아오니 날씨가 이렇게 다르다니.. 미국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영희 목사님의 안내로 오후 시간에 덴버 교외에 있는 Adams County Detention 을 방문하였다. 그곳은 이영희 목사님께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14년동안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시는 곳이다. 목사님과 함께 도착한 교도소에서 차가운 눈보라가 얼굴을 스치며 제일 먼저 눈이 떠진것은 가시철망이 쳐져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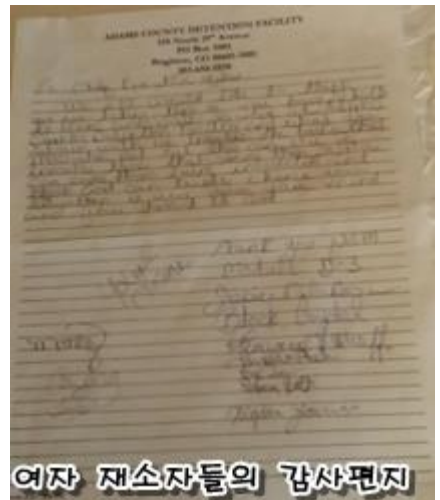
높은 담장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서 등록처에서 내 운전면허증을 내고 방문자라는 이름표를 받은후 엑스레이 게이트를 통과하며 몸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문으로 다가가니 철컹하면서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가만히 보니 그곳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컴퓨터로 모든 문들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교도소 내부에 있는 타워에서 카메라로 보면서 교도관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문이 열리며 펼쳐진 복도는 하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마치 병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목사님이 첫번째로 안내한 곳은 도서실이었는데 많은 성경책과 소설책들 사이 한쪽 벽에 있는 책꽂이에 교도소 문서선교 책들이 잘 정리되어 꽂여있었는데 손때가 많이 묻어있었다. 그 책들은 재소자들이 많이 빌려가서 읽고 다시 가져온 것들이라고 한다.

두번째로 간 곳은 작은 컨퍼런스룸인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녁엔 여자 재소자들 25명이 사인을 했는데 그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설레이는 기대감에 시간이 되자 20명의 여자 재소자들이 유니폼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였다. 찬양시간을 시작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찬양을 신청하며 부르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손을 펴시고 손마른 중풍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었고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였다. 성만찬으로 마친 예배는 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광고시간에 한 여자 재소자가 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주었다. 그들은 2년전 뉴욕연합회에서 교도소 문서선교를 위해서 달란트 헌금을 한것에 대한 감사였다.

예배후에 방문한 곳은 아픈사람들이 있는 의료지역이었는데 많은여자 재소자들이 누워있었고, 특별히 내가 충격을 받은 곳은 자살 시도자들의 방이였다. 그곳은 개인별로 투병한 공간에 1명씩 들어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곳에 들어있는 남 녀 재소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방안에 담요를 덮어쓰고 누워있거나 앉아있었는데, 모두가 희망이 없어보였다.

그다음날 오전에 다시 교도소를 방문하여 이번에는 3곳의 여자 재소자 방들을 직접 심방하였다. 초범자의 방, 재범자의 방, 그리고 중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의 방에서 만난 여자 재소자들은 이영희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외치자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방마다 책꽂이에 교도소 문서선교로 발행된 신앙서적들이 꽂여있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에와서 이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도소 문서선교로 발간되는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였다.그리고 한인연석교회가 교도소 문서선교 책들을 발행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주었다. 그 편지들은 교도소에서 받은 종이에 몽당연필로 여러사람이 함께 쓴 감사의 내용이였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기도 제목들을 묻자 대부분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요구하였고, 마음의 평화를 갖고 복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였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여자 재소자들의 감사편지

교도소 문서선교를 전국연합회가 지난 4년간 선교헌금을 보내서 신앙서적들을 발행하는데 참여해 왔다. 이번에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보니 재소자들이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문서선교를 통해서 영적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재소자들은 이민자인 한인여성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채플린 이영희 목사님을 존경하며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체구의 동양여성으로 교도소에서 헌신하시는 이영희 목사님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사회의 약자들이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 교도소도 우리의 선교지이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곳에 한인여성교회가 참여하도록 초청을 해 주셨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보고... 너희가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36-40)”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뉴욕한인교회)

## > English



### My Experience with the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s Book Project at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It was snowing heavily when I arrived at the Denver airport. I felt like the beautiful snowy day welcomed me to Denver. It was summer in New York when I left, but after the five and a half hour flight the weather was entirely different. Again, I realized that America is a huge country.

Pastor Yonghee McDonald picked me up at the airport and took me to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in the afternoon. Pastor McDonald, a reverend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as been serving the facility for 14 years as a prison chaplain.

The first thing I noticed is the high wall which surrounds the facility. The facility has a security system for visitors; I submitted my driver's license and received a visitor's pass. Then, I passed through the X-ray gate to have a body scan. After that, the door to the inside of the facility was automatically opened. There was no door knob on the door. Later, I heard correctional officers inside the facility through the camera system installed in the facility, and they opened all the doors in the facility through the system.

As soon as the door was opened, I saw white colored flooring. It looked like a hospital. The first place Pastor McDonald escorted me to was a library. The shelves were well-organized and there were many Bibles, novels, and TPPM books on the shelves. The books were not new because many people shared the them.

Second, I went to a small conference room for worship service. That night, 25 female inmates signed up to attend the worship service. I was excited to worship with them. I saw women who were wearing prison uniforms come into the room for worship. They chose worship songs and we sang together. Then, I began to preach. My sermon title was "God's Hand" and was about the time when Jesus healed a man's crippled hand. The story is in Mark 3:5b, "Jesus said to the man, 'Hold out your hand', the man held out his hand and it was healed." God always holds out His hand

to us. Whoever listens to His voice will be healed and whoever accepts the Lord will never fail. The worship service took 40 minutes and finished with communion. After the worship service, one of the inmates gave me a thank-you card. It was to the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who donated money for TPPM two years ago.

I toured a medical care division after the worship service. There were many female inmates on the beds. I was shocked when I saw suites for suicide prevention. Each suite has one individual and the room is completely visible so that the correctional officers can observe each one of them. The inmates in



문서선교책들이 있는 창고

those suites were sitting or lying while covering themselves with blankets. They all looked hopeless. Next day, I visited three rooms in the facility to meet some female inmates. Their rooms are designated by their classifications. Pastor McDonald suggested that they pray together and they gathered at one of their suites. Each room has book shelves, and TPPM books were there. The inmates said it is a great blessing to encounter the Lord Jesus through reading the books.

In addition, the ladies were grateful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for publishing TPPM books. Each one of them wrote a short message about their thankfulness. They wrote with a small pencil from the prison; I felt their genuine gratitude. I asked for their prayer requests, and most of them asked for prayers for their families, children, and for peace while they serve their sentences in prison. I cannot forget the moment we all held hands and prayed together. Many of them were weeping while they were praying.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ve participated in publishing the TPPM books for four years. However, this was the first time for me to visit the facility. Visiting the facility gave me an opportunity to see the revival among the inmates; I realized TPPM books help the inmates know Jesus and give them hope. It was good to see that the inmates know how much they are cared for and loved by immigrant Korean women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es. TPPM books are great sources of revival in prison. Furthermore, I was impressed by the inmates and staff in prison; they deeply respect and trust Pastor Yonghee McDonald. She is a small, Korean immigrant woman, but her heart and vision are grand; she touches many people's hearts. I was so proud of her and her commitment to the inmates.

Prison can hardly get people's attention. It is a place that is distant and discriminated against by people. Moreover, prison inmates often are from under-privileged environments and tend to be neglected in society. For that reason, prison is a mission field. Indeed, our Lord Jesus has been ministering to people in prison from the beginning, and thankfully Jesus opens the door and invites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in this ministry to work with Him.

Mathew 25:36-40 says,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visit me"... "When did we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go to visit you?" The King will reply,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Written by: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New York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 2017년 북조지아 연회 연합회 선교걷기

며칠 전부터 오전 비 소식에 모두 긴장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무섭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토요일 아침에는 맑은 날씨로 변하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서 걷기대회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묵도와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베다니 감리교회 이춘희 사모님의 기도와 아틀란타 한인교회 금요여성 예배를 담당하시는 김희란 전도사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란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요나 4:10-11의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교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많은 회원이 스와니 크릭파크의 산책로를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오래간만에 만난 회원들과의 교제와 동행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특별 참석해주신 몇몇 남 성도님들의 봉사로 어느때보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토요일 아침부터 나온 몇몇 젊은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 행사에 빠질 수 없는 북조지아의 장 3 형제, 간장, 된장, 고추장과 회장님께서 온 가족을 동원해 준비해오신 오렌지꽃 꿀, 건강식 도토리 국수 등 여러 바자회 물품들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구 건너편에 있는 중앙아시아지역의 여성들에게 북조지아 연합회의 한인여성교회 회원들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기회로 모두 함께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는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글: 반혜진 권사, 아틀란타 한인교회)

## > English



### 2017 North Georgia Conference KUMW Network Walk-a-Thon

Recent rare storms in Georgia kept everyone on their toes before Saturday. With many prayers from all the members, it couldn't have been better weather to take a walk in the Suwanee Creek Park.

We started the day off with a worship led by Mrs. Marian Kim from Immanuel KUMC, the President, followed by a prayer by Mrs. Choonhee Namkoong from Bethany KUMC, and then by a sermon by Pastor Heeran Kim from Korean Church Atlanta UMC(KCAUMC) who leads its Friday Women's Worship services. Pastor Kim read Jonah 4:10-11 and shared how Bible is like a love letter from God to share his heart with us: how he feels about us and our neighbors. She explained that a mission is like sharing God's love and grace that we have in ourselves with our neighbors far and near. All we have to do is let his love and grace flow from us to others.

After the worship, the North GA Conference KUMW Network members took strolls around the Park in groups. It was a time of fellowship and companionship. We enjoyed the bright sun lights between the trees, chitchat, and praised the Lord for the wonderful nature. A few good men prepared a fantastic lunch for the ladies. It was also good to see some teenagers, our future KUMW members, who were dragged out of the beds early Saturday morning. Our famous three Jang brothers, Ganjang, Deonjang and Chungkukjang, the ongoing popular item, Acorn noodles and this year's special guest, Orange Flower Honey was very popular among the fundraising items. Sharing the beautiful Saturday morning with our fellow members, taking a walk in the nature that God created for us and praying together to let our love and grace to overflow all the way to Central Asia gave all of us an overwhelming joy that we will remember for a long time.

(Written: Haejin Ban, KCAUMC,GA)



남가주 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 평화학교 세미나





## 남가주 평화학교 세미나

살롬!

남가주 여성교회 연합회의 평화학교 세미나가 5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을 당부하시는 회장님의 말씀에 점심 약속을 물리치고 과연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기대하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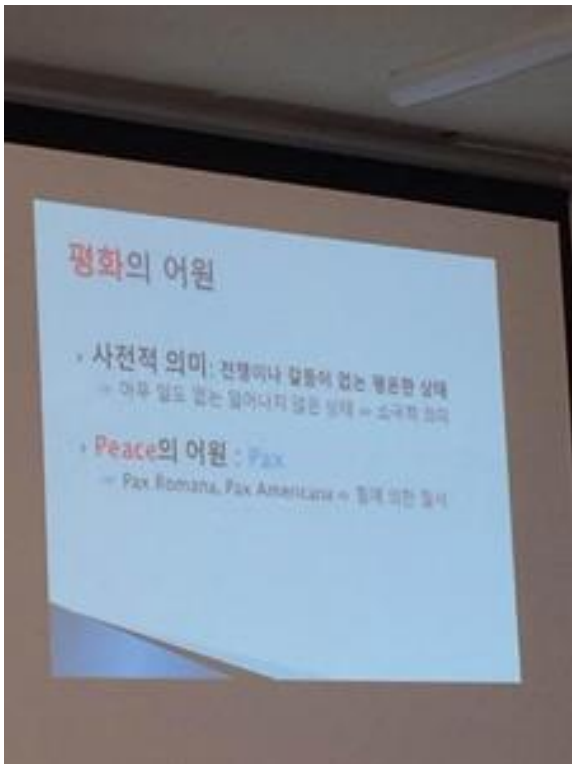
김도민목사님의 사랑은 책임이고 사랑은 생명을 움직이는 힘이며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자'를 실천하자는 간결하면서도 굵은 설교 말씀이 끝나고, 이어서 권혁인 목사님의 특별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강의 끝나는 순간까지 웃게 해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시작된 강의 주제는 '살롬' 즉 평화였습니다. 현실은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더불어 함께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믿음 생활은 싸구려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일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창조와 조화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온전함속에서 완전함으로 의미와 가치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알지 못한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금수저를 흙수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한자어를 풀어서 뜻을 보면 쌀을 나누어 먹는것이라고 했습니다. 청교도 경제 윤리 핵심, 즉 자본주의 기업정신의 궁극적 목적은 일자리 창조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회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그리스도 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이다'라는 본철퍼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 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시선은 돈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고, 그래서 언제부터 일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일꾼들에게는 똑 같은 임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줄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Home Depot 앞에서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모습 뒤에 집에서 기다리는 배고픈 아이들의 얼굴이 보여야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할곳이 바로 평화임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말씀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강의 내용을 듣다가 살짝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었으나 말씀에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소서. 제가 감히 목사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속에는 하나님과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 두 마음에서 나를 죽이고 없애면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으로 된 굳건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으며, 평화를 일궈내는 화합은 오직 마음을 넓히고 호응하는 자세로 이해 해 줄 수 있는 참 신앙인이어야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기독 신앙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품이 아니라 창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고 상황을 보고 소통을 하며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어야만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 난 어떤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왔나하는 반성으로 마음 한구석이 숙연함으로 가득찼던 강의였습니다. 5월 부모님 사랑이 그리운 계절에 한국 어머니들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시다고 자식이 밥먹는 것만 봐도 안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시는 엄마의 내리사랑, 그런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 주심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남을 위해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고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어떤 목적없는 이웃 사랑을 나누자 하셨습니다. 웃음과 함께. 그리고 마무리는 나의 눈물, 콧물도 함께였습니다. 가슴 저편에 앓고 있던 아픔을 치유해 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다시 만나고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글: 조영미집사, 남가주 연합회 임원, 윌셔연합감리교회)





### After the Peace School Seminar

Shalom! There was a Cal-Pac KUMW "Peace School Seminar" on My 20th at the Wilshire UMC. I couldn't ignore the President Mrs. Choi's request to attend the seminar so I canceled my previous lunch arrangement with much excited expectation of the seminar.

The opening sermon by Pastor Kim, Do-Min was short and straight to the point. He said love is a responsibility and it is a living energy. He asked everyone to practice Jesus' love to each other and then continued with a special seminar by Pastor Kwon,

Hyuk-In. Pastor Kwon emphasized that laughter brings blessings. He promised us that he will make us laugh throughout the seminar. In reality, the religious belief started by people who are not accepted as a person in our society. In the heavenly world, Christians should be real believers. However, in today's world, our belief relies on grace of no value in Jesus' eyes. Although God created a beautiful, balanced, and harmonized world for us, we do not realize that we worship idols by degrading God given golden spoon to dirt spoon. The word, "peace" in Chinese characters "Pyung-Hwa" means "sharing rice with each other". The Puritan's economic ethic, the capitalism's entrepreneurial concept is to provide jobs and happiness. People are not happy if they do not work. Pastor Kwon said that Pastor D. Bonhoeffer taught us that living righteously in this world means "The God's divine is to obey the God's word, Jesus."

He was explaining the Bible verse Matthew, chapter 20 metaphorically, and that Jesus' attention was at people, not materials. That's why he paid the vineyard workers the same wage regardless of their different worked hours. We must understand the situation of people seeking work. We often see people looking for jobs hang out at Home Depot until the evening. When we see those people, we should be able to see their starved family waiting for him or her. My mind got stunned when he told us that where Jesus turns his attention is where the peace is at. At the beginning, I had planned to ditch the seminar in the middle.



However, I couldn't do that since I was very much drawn into the seminar. "Lord, please forgive me!" I dared to evaluate the Pastor's speech." The main point of Christianity is to follow Jesus. God and I are the pillars of our conscience. God made us as a creation, not as a finished product. He told us not to come to a conclusion in advance but to communicate by assessing the situations in order to have a fruitful, faithful life. As I was listening to his seminar, I reflected myself to see if I lived as a faithful person. The month of May always reminds me of a mother's love. There's a saying by a Korean mother, "just watching my children eating makes me full". This quote reminds me of God's love that makes me full with his loving words.

We must love others the way God loves us and thank the Lord that we can share without condition. And we really shared our tears together at the end of the seminar. thank Pastor Kwon for healing my distress. I look forward to meet

him again with another subject in the future.  
(Written by **Young-Mi Cho**, Cal-Pac KUMC Network, Wilshire UMC)



## 2017 년 전국지도자훈련 안내



### 2017 년 전국지도자훈련

주관: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주제: 평화와 여성공동체  
날짜: **2017 년 9 월 28 일(목) - 10 월 1 일(주일)**, 3 박 4 일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신청마감일: **2017 년 6 월 30 일**  
등록금: 1 인 \$350 (숙박비, 식비, 세미나비 포함)  
참가인원: 150 명 (1 세 한인여성교회 회원 130 명과 Young Women 20 명, 선착순)  
장학금: (1) **여행경비 장학금** - 비행기 요금 최대 \$150 까지, 자동차 마일리지 50% 를 훈련후 지급

(2) 30 세-40 세 이하의 **젊은여성 장학금** - 등록비 중 \$200 을 훈련후 지급

(3) **Young Women 장학금** (18 세-30 세 이하 UMC 소속의 미혼여성) - 등록비 \$350 Free

. **Young Women Program: 9 월 29 일(금) - 10 월 1 일(주일)**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청합니다.

. **등록방법:** 등록신청서를 [www.nnkumw.org](http://www.nnkumw.org) 에서 **download** 받으세요.

> English

### 2017's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heme: Peace and Women's Community

Time: **Sept. 28 (Thurs.) - Oct. 1(Sun.), 2017**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Eligibility: Members of Korean UMW (First 130 registrants) and Young Women (First 20 registrants, Participants for the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Seoul or US)

**Registration Fee:** \$350 (includes room, board, and program fees)

**Deadline: June 30, 2017**

#### Scholarships

(1) Travel: 50 % of airfare (or driving expense), maximum \$150, will be reimbursed after the event. You may donate your travel scholarship for the leadership training of young women as future leaders.

(2) Scholarships for **young adult women:** From 30 yrs old to 40 yrs old woman who demonstrate leadership qualities. We will reimburse \$200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event.

(3) **Young woman:** From over the age of 18 yrs old to under the 30 yrs old single woman get free registration fee.

(4) We invite mothers and daughters to the Young women's Program: Sept. 29th - Oct. 1st.



If any young woman want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on the 28th , she is welcome to  
\* You can [download applications](#) and guidelines at our web-site [www.nnkumw.org](http://www.nnkumw.org).

( 글:김명래 총무, 전국연합회 총무)



## 독서프로그램



### "우리는 누구인가?"

:연합감리교회 제자국 (Discipleship Ministries, UMC)

이 책은 한마디로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다.

요즘은 Non Denomination Church 들도 많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데, 교파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와 독특성, 정체성과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또한, 교회의 임원들이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교회의 사역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새 신자나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연합감리교회의 특성을 알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1 장에서는 감리교회의 독특성을, 2 장에서는 연합 감리교회의 역사와 조직, 신령상 직제에 대해서, 3 장에서는 연합감리교회의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4 장에서는 예배, 교제, 봉사, 전도, 헌금, 선교, 기도, 소그룹등을 통한 감리교회의 신앙생활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설명서라고 해서 이 책은 읽기에 딱딱하거나 지루하게 두꺼운 책이 아니다.

교회의 새 신자 교육에 사용해도 좋고, 또 소그룹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나누면 좋은 교재이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확실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교단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게 될 것이다.

구입방법은 <https://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manual-of-umc> 를 방문하여 구입할수 있다.

( 글: 송은순 사모, 전국연합회 영성부장, 독서프로그램 위원장, 델라웨어 한인교회)

## > English

"Who are we?"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marks (Discipleship Ministries, UMC)

This book in brief summary is about explan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 These days, there are many Non-Denomination Church, believing in one God with the same bible, led by the Holy Spirit, and questioning why denomination is so important; but we are people serving in the UMC. This book easily explains the history, uniqueness of UMC, identity, doctrine, and how to live spiritually as a UMC member. Not only does it help the new comers from other denomination to adapt and understand the identity of UMC, but also it teaches the UMC church councils how to serve and manage the church. First chapter talks about the uniqueness of UMC, second chapter is about UMC's history and organization, roles of spiritual leaders, third chapter is about basic doctrine of UMC, and fourth chapter is about living the spiritual life through worship, fellowship, service, evangelism, offering, mission, prayer, small groups in UMC. This thick UMC handbook is not strict or boring to read. It will be useful for new comers, or for the small groups to learn and share. Knowing "who we are" will bring definite identity of ourselves in UMC and will be able to serve our church and denomination with respect.

(Written by **Grace Song**, NNKUMw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Director of Reading Program Committee, Delaware KUMC)





### 여선교회의 선구자 여메레

“ 어찌하여 부녀들이 특별히 따로 이렇게 애를 쓰고, 처음에 예수님을 애써 찾은 이는 몇 부인들이라 예수 밝히 나타나사 가라사대, 여인이 평안히 가라 하시고 위로하사 무서워 말라 하시며 가서 내 동생들에게 이르되 갈릴리에 가면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미쳤도다. 외국부인들이 조선을 위하여 이렇게 힘을 쓰나니 우리 대한의 여자들도 동심 협력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오, 외국 부녀보다 대한 풍속도 알고 방언도 잘하는 터시오니 모두 함께 힘써 구세주의 이름을 전하옵시다 ”

한국 근대기 초기에 조직된 최초의 여성단체 조이스회(Joyce Chapter) 의

부회장직을 맡은 여메레는, 조선의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조선 여성을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나선다면 조선의 문화와 언어에 미숙한 서양 선교사들보다 못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메레는 1874년 경남 마산에서 아버지 여신서와 어머니 안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두 동생이 어려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외동딸로 자랐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성품이 좋았던 그녀를 부모는 서울로 데려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맡겼다. 이름도 없이 혼자 남겨졌던 그녀는 이화학당의 초기 학생이 되어 세례를 받고 메리라는 세례명도 얻게 되었는데 메레는 메리의 한자 음이다.

이화학당을 졸업한 여메레는 의료선교사 셔우드 홀 (Sherwood Hall)에게 기초의학과 간호법을 배워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에서 간호사 겸 전도부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1892년 배재학당 출신 황현모와 결혼하면서 이때부터 서양식 전통에 따라 그녀는 황메레로 불리게 되었다. 결혼 3개월 만에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난 남편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사망하게 되는데 이후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하며 더욱 보구여관 일에 전념하였다.

수석 간호사였던 여메레는 입원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한편 전도부인으로서 환자와 병원의 직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기도회와 성경 읽기 모임을 가졌다. 매일 정오에는 약을 타러 온 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였으며, 주일 오후에는 예배를 인도하였다. 방문해야 하는 환자나 교인이 있으면 언제나 찾아갔고, 시간이 되는 대로 병원 밖으로 나가 전도에 힘썼다.

1987년 10월 31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엠틀청년회(Epworth League, 오늘의 MYF) 여성지회인 조이스회가 창립되었다. 오늘날의 선교회의 모체가 된 조이스회에서 부회장직을 맡으며 여선교를 위해 헌신한 여메레는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주체적인 선교의식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회원의 나이를 35세 미만으로 제한한 조이스회는 장년층의 폭넓은 선교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청년층 중심의 조이스회와 차별을 둔 장년층 대상의 보호여회가 조직된 창립과정의 중심에도 여메레가 있었다. 1900년 가을 정동교회의 담임목사인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선교사가 안식년 휴가를 맞아 귀국하게 되자 선교사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단체 사진을 찍어 전달하기로 했다. 정동교회



여자 교우들 39명이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면서 사진값으로 일 인당 20전씩을 거두었는데 그중 1원 10전이 이 남게 되어 가난한 여성 교인들을 돕는 데 쓰기로 하면서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이 보호여회의 시작이 되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여메레는 ‘이회가 작정 되게 하옵시고 또 이회를 실시한 후에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사 이 회가 진보케 하옵시고 이 회가 크게 흥왕하여 회우 수효가 여러 만 명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렸다. 여메레의 바람대로 오늘날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는 100만 명의 여선교회로 성장하였다.

보호여회는 가난한 여성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전도와 봉사 사업도 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여성들에게 방물장수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여메레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여성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1900년 이후 이화학당의 교사로, 1906년 고종 황제의 계비 임비가 진명여고를 세울 때는 학감으로 초빙되어 학교 운영의 실질업무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1910년 일제 강점 후 진명여고는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교육활동은 중단되었다. 시국의 아픔 속에서 방황하던 그녀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애국 계몽운동을 펼치던 양흥묵과 재혼하였지만 몇 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불운을 겪게 된다. 이후 경성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성서학원 교수와 성서학원 여자부 사감을 거쳐 목회 일선에 나설 때 그녀의 나이 60세였다.

1933년 2월 27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전도사로서 농촌교회를 섬긴 착한 여종 여메레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신을 갈고닦아 한국 교계와 교육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선각자였다.

(글: 이미숙 집사, 전국연합회 역사부장, 베다니 KUMC, GA, / 자료: 한국여선교회 전국연합회 2017년 공과책)

### Merye Yeo, a Foremother of Church Women's Mission Organization

"Why are you trying so hard alone? At first, there were only several women who came to look for Jesus. And Jesus clearly appeared and said to them, 'Women, go in peace. He comforted, told them not to fear, and asked them to tell His disciples they would see Him in Galilee. These words still touch us. Since foreign women are using all kinds of effort for Chosun, if our Korean women cooperate with one another, there will be nothing that cannot be done. The Korean women know the customs and are capable of speaking the tongues, let us all share the name of the Savior together."



so

Merye Yeo, the vice-president of the Joyce Society, the first women's organization in the early modern era of Korea, said and emphasized that, if the women of the Chosun dynasty educated themselves with purpose of mission, they would not be far behind than the Western missionaries who are unfamiliar with Korean culture and language.

Merye-Yeo was born in Masan, Gyeongsangnamdo, in 1874. Her father's name was Shinsuh Yeo and her mother's maiden name was Ahn. She was raised as an only child after the death of her two younger siblings. She was very bright and good natured from early age. Later her parents took her to Seoul and left her to Mary Scranton, a missionary. She was left alone without a name, and was baptized as an early student of the Ewha School. That is how she received a baptismal name, Mary. Merye is Chinese pronunciation of Mary.

Mary graduated from Ewha School and learned basic medical science and nursing from Sherwood Hall, a medical missionary, and began working as a nurse and evangelist at Bogue Yeokwan, the first women's hospital in Korea. In 1892, after marrying Hwang Hyeon-mo from Bae Jae School, she followed the Western tradition and was renamed as Merye-Hwang. Unfortunately, her husband passed away only three months after their marriage while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fterwards, she devoted more of her time to faith in order to overcome her sorrow.

Merye-Yeo was a top student, became a nurse, and took care of patients in hospital. Also, as a Bible Woman, she led prayer meetings and Bible study every morning for the staff and patients of hospitals. At noon every day, they read the Bible and prayed together with those who came to take medicine, and on Sunday afternoons they had worship service. Whenever there was a patient or a church member to visit, they went out of the hospital for evangelism.

On October 31, 1987, the Joyce Society, Epworth League (today's MYF) women's branch, was founded at Jeongdong First Church. As a vice-chairperson at the Joyce Society, which became the mother of today's missionary community, she devoted her life to missionary work and contributed greatly to establishing the main idea of "women delivering the gospel to women."

The Joyce Society, which limited its membership to under 35 in age, restricted the wider missionary activities of the older people. At the heart of the founding process was the establishment for the older women generation (Bohoyeohy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Joyce Society in the youth center. In the fall of 1900, H. G. Appenzeller, a pastor of Jeongdong Church, returned home for a sabbatical leave. After discussing what to present to the missionary, they decided to take a photograph of the group with hopes that they would not forget after returning to their hometown. 39 members of the Jeongdong Church collected 20 pennies per person for a photograph with the Appenzeller couple. After paying for the photo, they only had a dollar and ten pennies left, and decided to donate the money to the poor women members. This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methodist women.

Merye-Yeo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Bohoyeohye. She continuously prayed, "May this Society be established, may the Lord be the head of it and teach us, may the Lord bless this organization so it can prosper with tens and thousands of membership." Fortunately, Mye-rye's prayers were answered. Today, KWSCS(Korean Women Society Christian Service) has grown to one million in membership.

Bohoyeohye provided relief for poor women while at the same time carrying out evangelism and service projects. In addition, it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women so that they will find ways to escape from poverty.

Merye-Yeo showed her leadership not only in the church but also in the general society. Since 1900, she was a teacher of Ewha School, and in 1906, Emperor Gojong's imperial guard invited her into the academy for the real work of school administration. However,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1910, Jinmyeong Girls' High School fell into the

hands of the Japanese, and education and all the activities were forced to cease. When Merye-Yeo was wandering in the pain of the loss of her country, she remarried Heungmuk Yang. However, soon after the marriage she experienced a misfortune of her husband's passing. After graduating from the Gyeongseong Bible Academy, she became a professor at the same school. She was 60 years old at the time.

Merye-Yeo, who served as a missionary in the rural church of the Chosun Dynasty, worked faithfully until her death on February 27, 1933. She was a pioneer who left a great mark in the history of Korean Church in the name of the Christian faith.

(Written by **Meesook Lee**, chairperson of NNKUMw history, Bethany KUMC, GA / Resource is from 2017's Program book of Korea W.S.C.S)



## “함께하면 쉽니다: \$1,000 모금운동”



**1884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 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 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매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시작된 한인여선교회는 지난 23년간 여선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선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선교회 회원과 2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번 6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1884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의 볼드윈, 매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선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 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1,000 헌금 방법)

- . 매달 \$45 또는 1년에 \$500 을 2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mailto:mrkim81@gmail.com) / 914-473-7401 )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2017년도 후원자 명단: 안용자, 김명래, 김리자, 이경신, 송은순, 이익화, 김순덕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national training event. We need your help. If many members of the NNKUMw donate \$1,000 over two years, the training event will be possible.

**It is easier if we try together!**

We can become another Mrs. Baldwin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women, children and youth who are still living in the dark. We ask you to write a new chapter of mission history by enabling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o be the tool to develop

future leaders for Christ.

(Ways to donate \$1,000 mission fund)



**2017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Yongja Kim, Myungrae Kim Lee, Lija Kim, Kay S. Rhee, Eunsoon Song, Ek Hwa Lee  
Dorothy Kim

Monthly donation of \$45 or yearly donation of \$500 for 2 years

NNKUMw is 501c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government.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Send checks "Payable to NNKUMW,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ew York 11364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mrkim81@gmail.com](mailto:mrkim81@gmail.com) or call 914- 473- 7401

Copyright © 2008 [www.nnkumw.org](http://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여성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mailto:members@nnkumw.org)

발행인: 김리자 회장/김명래 총무/권오연 부총무/한글교정-안영숙/영문교정-Paul Lee/Web Master-김시춘